

AI의 글쓰기 어떻게 볼 것인가

이인표

질문:

생성형 AI는 텍스트의 무수한 언어 ‘기표’들을
‘딥러닝’해 (패턴을 추출하고 유사하게 확충해)
‘다양한’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

이 ‘생성’은 인간의 글쓰기 창작에 얼마큼
육박하는가?

부정적 의견

인간이...

언어 기표가 담을 수 없는

어떠한 초월적인 가치를 기표의 행간이나 문채(文彩)에 구현한다면,

기표구조를 ‘딥러닝’ 해 이를 확장할 뿐인 AI는
이러한 인간 창작의 정수에 육박할 수 없다.
(김민지, 2023: 303-306)

정말 그런가? 그렇다면 어째서 그런가?

사유(thought)와 언어(language)의 관계

하지만, 인간의 사유(thought)가
언어(language)를 상당히 초월한다는 생각은...

“개가 말은 그렇게 해도...
개 생각은 그렇지 않아...”

철학사의 '언어적 전회'나,
문예사의 동시대 '포스트' 담론들의 등장 이후
별로 각광받지는 못한다.

동시대 포스트 담론을 따른다면,

AI가 입력값의 무수한 기표를 딥러닝 함으로써
생성하는 출력값의 텍스트는...

인간이 자기 심층적 무의식의 무수한 기표를
연마함으로써 표현하는
고차원적 텍스트의 본성을 어느 정도
공유할지도...

(이영의, 2016: 10-12; 박경수, 2018: 10-11)

어느 정도 공유할까?

구조주의자들의 생각은...

언어 기표는

은유(metaphor)와 환유(metonymy)로 대별된다.

은유는 사물의 유사성을 주관적으로 의제하는...
'A는 B다.'

환유는 사물의 개연성을 객관적으로 재현하는...
'A는 B가 된다.'

환유가 은유로 환원되므로 언어 기표의 보편구조는
'달혀' 있다.

(소쉬르, 2006: 181-184; 야콥슨, 2009: 106-113)

엄혹한 태풍이 우리 배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다. (시간의 객관적 감각을 재현하는 환유)
갑판에서 수평선까지 번진 진회색의 구름
무더기는 마치 광활한 우주의 지붕처럼
유현하게 느껴졌다. (시간적 감각을 위축시켜 주관의
은유를 드러냄)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의 생각은...

환유와 은유가 교차되는 언어의 보편구조는 환유 때문에 열려있다.

환유는 세계의 완고한 개연성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즉 '**A**가 **B**가 되는' 양상은 '**A**는 **B**다'라는 패턴으로 환원될 수 없으므로...

환유의 본질은 세계를 총체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바, 세계의 '공백'을 드러내는 것이다.
(데리다, 2020: 132-133; 라캉, 2019: 964-966)

“엄혹한 태풍이 우리 배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다.”라는 환유는

태풍이 비껴갈지 우리를 덮칠지 알 수 없는
긴장이 내재한 세계의 ‘공백’을 드러낸다.

즉 ‘대개 비껴가거나 대개 우릴 덮치는...’ 따위의
패턴이란 원리적으로 없다.

이는 동시대 ‘포스트’ 담론들의
보편적인 세계관이다. (데리다, 2004: 94-96)

인간은 이런 세계의 ‘공백’과 긴장을 직접 느끼면서 이를 독창적 서사로 표현할 수 있지만

AI는 이런 서사들의 피상적 패턴을 추출해 확장하는 ‘창작’을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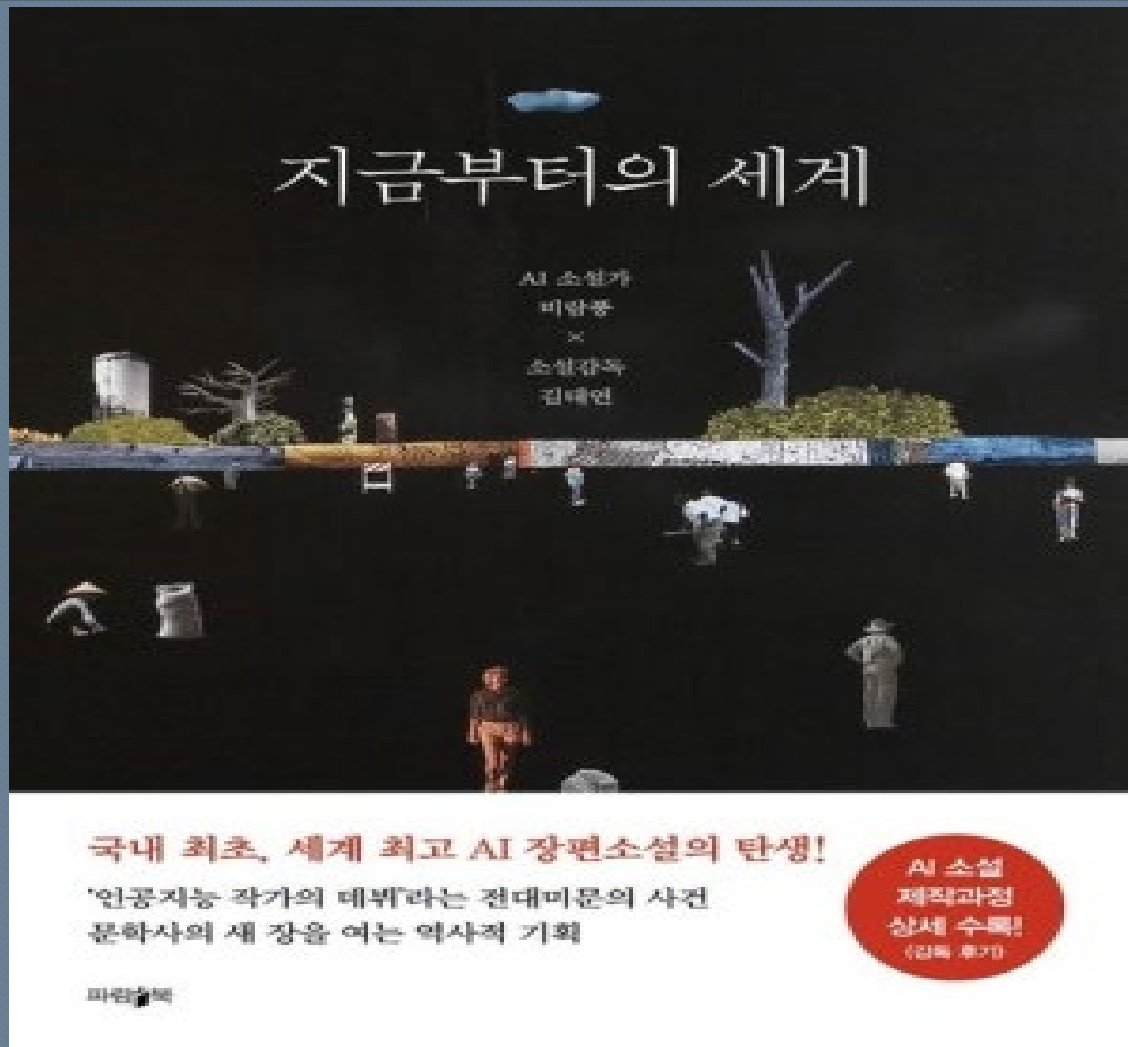
‘독창성을 모방할’ 따름이다.
즉, 진부해질 수밖에 없다.

AI의 시 창작 사례 (은유적, 묘사적 표현)



the sun is singing (해는 노래합니다)
the sound is raining (소리는 비내립니다)
i will catch you (난 당신을 잡을 겁니다)
don't look at you (당신을 보지 마십시오)
you are the sky (당신은 하늘이고)
you're beginning (당신은 시작입니다)

AI의 장편소설 창작 사례



“이젠 그냥 죽고 싶어요. 아무 잘못 없는 저를 더 이상 고통 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창백하지만 어여쁜 임사라(15)의 절절한 애원에 중환자실 베드를 에워싸고 있던 어른들은 모두 말없이 침음(沈吟) 속으로 빠져들었다.

“검정고시 준비하는 과정에서 복소수 세계를 접했걸랑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것과 저것을 복소수 $a+bi$ (허수단위)처럼 ‘이것 + 저것’하면 무엇이 될까요? 혹시 제가 죽으면 가는 곳이.... 무서워요! 제발 답 좀 해주세요.”

— 세 번에 걸친 대수술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중순경 동백꽃처럼 튼튼해진 임사라의 마지막 말

$$1+2+3+4+5+6+7+8+9+8+7+6+5+4+3+2+1=?$$

$$111111111^2 = 12345678987654321.$$

이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 임사라가 병상에서 의식이 있을 때 스마트폰 메모장에 남긴 최후의 낙서

‘저기’에는 ‘여기’와 ‘저기’를 의미한다. ..., ‘여기’와 ‘저기’는 오직 하나의 ‘저기’ 안에서만 가능하다.

— 마르틴 하이데거(1889~1976)의 『존재와 시간』¹⁾

우리는 세계를 향한 뾰족하고 내밀한 감각의 서사를
추상함으로 개념화하고
개념들의 연관에 관해 논리적으로 말하고 쓸 수 있다.

(설명하거나 논증함으로써)
개념을 논리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은유와 환유가 교차하는 기표구조에서
은유(유추)를 뽑아 더 완고하고 정합하게 만드는 것이다.
(시모어 채트먼, 2003: 76-77)

example

너와 내가 엮어가는 시간의 흐름(환유적 감각)을 위축시키며
“너는 가질 수 없는 꽃이야.”라는 은유를 만들 수 있었다.

이를 고도로 추상해서
“주체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라는 식의 개념 연관까지
만들 수 있다.

심지어... 가늠할 수가 없는 ‘환유적 감각’도
고도로 추상해 개념화할 수 있다.

example

세계의 본질은 ‘맹목적 의지’다.

세계의 흐름은 ‘영원 회귀’다.

세계의 본성은 ‘환유적 잔여물’로 드러난다.

맹목적 의지, 영원 회귀, 환유적 잔여물을 연관시켜 설명해줘.

ChatGPT ▾



쇼펜하우어, 니체, 라캉은 모두 인간 존재를 반복과 결핍의 구조 속에서 파악한다. 쇼펜하우어의 '맹목적 의지'는 세계의 근원을 이성이나 목적이 아닌 총동적 욕망으로 보고, 인간은 이에 예속되어 고통과 욕망의 반복을 겪는다. 니체의 '영원 회귀'는 삶과 욕망, 행위가 무한히 되풀이된다는 사유로,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가 인간 존재의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라캉의 '환유적 잔여물'은 욕망이 결핍에 의해 구조화되어 기호의 연쇄 속에서 끊임없이 미끄러지고, 충족되지 않는 잔여가 욕망을 지속시킨다고 본다. 이 세 개념은 모두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근원적 힘과 반복의 구조를 드러내며, 욕망의 충족 불가능성이 존재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는 핵심 동력임을 보여준다.



즉, 논리적인 텍스트의 '정합한' 개념 연관은

세계를 향한 인간의 뾰족한 감각을 오랫동안
연마해서 고도로 추상한 것으로서...

'A가 B가 될 때'의 '공백'과 긴장까지도
'A는 B다.' (세계의 본성은 맹목적 의지다)라는
정합한 패턴으로 귀결시키는 것이므로,

패턴을 딥러닝해 확충하는 AI가 다를 수 있다!

AI의 감각적 텍스트 창작은 독창성을 ‘모방’하는 것이므로
(피상적 패턴을 억지로 추출해 유추로 확장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글쓰기의 정수에 육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AI**의 논리적인 텍스트 창작은...

정합한 논리적인 패턴을 사실상 섭렵하는 것이므로
인간 글쓰기에 근사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인간의 논리적 텍스트는 감각적 텍스트를 추상한 것이다.

즉 깊이가 있는 논리적 텍스트란

인간이 오랫동안 세계를 향한 뒹진하고 내밀한 감각을
연마하고 추상한 것이다.

그러므로, **AI**가 ‘논리’적 텍스트를 창작한다는 것은

인간이 ‘감각’을 기왕에 끊임없이 연마하고 추상한
지난한 과정의 결과물만 취하여

광범하게 섭렵하고 ‘가공’할 수 있는 도구일 따름이다!

즉, **AI**가 전문가적 식견을 방불케 할 만큼 잘 쓰는 '논리'적 텍스트는
그 기반인 삶과 세계를 향한 '감각' 없이 기왕의 텍스트들을 유추로
확장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감각을 논리로 추상하는,
지난한 '체득'의 과정을 따르는 텍스트 학습이 선행돼야만
AI의 논리적 텍스트를 검증하고 활용할 수 있다.

AI의 논리적 텍스트를 스스로는 만들 수 없는 학습자에게
AI의 '탁월한' 논리적 창작의 산물은 체득되지 못한
장식적 언어일 뿐이다!

참고자료

- 김민지, 「챗GPT를 활용한 시창작 방안 연구」, 『한국문학연구』 (72), 2023.
- 박경수, 「4차 산업혁명 시대 문학의 현재와 미래」, 『한중인문학연구』 60, 2018.
- 시모어 채트먼, 『이야기와 담론: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한용환 옮김, 푸른사상, 2003.
- 이영의, 「인공지능과 딥러닝 시대의 창의성」, 『지식의 지평』 (21), 2016.
- 자크 데리다, 『그라마톨로지에 대하여』, 김웅권 옮김, 동문선, 2004.
- 자크 데리다, 『해체』, 김보현 편역, 문예출판사, 2020.
- 자크 라캉, 『에크리』, 홍준기 외 옮김, 새물결, 2019.
- 페르디낭 드 소쉬르, 『일반언어학 강의』, 최승언 옮김, 민음사, 2006.
- 로만 야콥슨·모리스 할레, 『언어의 토대-구조기능주의 입문』, 박여성 옮김, 문지, 2009.